

(7급)

본 과목 풀이 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(회계기간)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. 그리고 기업은 계속해서 「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」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. 또한 주어진 이자율은 연 이자율이며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하고,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.

1. 20×1년 초에 (주)서울은 (주)나라의 보통주식 20%를 ₩1,000,000에 취득하면서 (주)나라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. 20×1년 초 (주)나라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₩4,500,000이었으며, 건물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이 일치하였다.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보다 ₩200,000 높게 평가되었으며, 잔존내용연수 10년, 잔존가액 ₩0,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. (주)나라의 20×1년 순이익은 ₩100,000이다. (주)서울의 20×1년 재무제표상 관계기업투자 주식은 얼마인가?

- ① ₩1,012,000 ② ₩1,016,000
 ③ ₩1,020,000 ④ ₩1,024,000

2. 리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.
 ② 운용리스에서 리스료수익은 리스자산의 사용효익이 감소되는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한다.
 ③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된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금액이 감소되면 금융리스채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감소금액을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.
 ④ 판매후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판매자의 판매에 따른 이익을 즉시 인식한다.

3. (주)서울은 소모품을 구입할 때 자산으로 처리한 후, 결산일에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비용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. 2017년 기초와 기말소모품은 각각 ₩270,000과 ₩360,000이고 당기에 소모품 구매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₩700,000이다. 당기에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소모품비는 얼마인가?

- ① ₩70,000 ② ₩610,000
 ③ ₩700,000 ④ ₩790,000

4. (주)서울은 20×1년 초에 액면금액 ₩10,000의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. 동 전환사채는 액면이자율 8%, 만기 3년, 매년도 말 이자지급 조건으로 발행되었으며, 만기일 상환 시에는 액면금액에 상환할증금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다. 사채 발행 당시 시장이자율은 12%였다.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회계처리가 다음과 같을 경우,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단,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.)

20×1.1.1. (차) 현금	₩10,000	(대) 전환사채	₩10,000
전환권조정	₩1,152	사채상환할증금	₩662
		전환권대가	₩490

- ① 발행 시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은 ₩9,510이다.
 ② 전환사채 발행 시의 자본요소는 ₩490이다.
 ③ 20×1년 말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₩1,141이다.
 ④ 전환사채의 보장수익률은 시장수익률인 12%이다.

5. (주)서울은 2017년 1월 1일에 취득한 건물(취득원가 ₩1,000,000, 잔존가치 ₩0, 내용연수 20년)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다. 동 건물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와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2017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(감가상각비와 평가손익 포함)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? (단, 2017년 말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₩930,000이며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다.)

- ① 원가모형 적용 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₩20,000 더 많다.
 ② 원가모형 적용 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₩30,000 더 많다.
 ③ 공정가치모형 적용 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₩10,000 더 많다.
 ④ 공정가치모형 적용 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₩30,000 더 많다.

6. (주)서울의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은 ₩350,000이다. 2017년도에 (주)서울은 임의적립금을 ₩50,000, 기타법정적립금을 ₩60,000 적립할 예정이다. 이익준비금 적립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₩330,000이라면 2017년도 당기순이익과 배당 최대금액은 얼마인가? (단, (주)서울의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1/2에 미달되며 법정 최소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.)

	당기순이익	배당 최대금액
①	₩90,000	₩300,000
②	₩90,000	₩330,000
③	₩130,000	₩300,000
④	₩130,000	₩330,000

7. (주)서울의 2017년 중 상품매매 내역은 다음과 같고, 상품의 회계처리는 실제재고조사법에 따르고 있다. (주)서울의 2017년 상품매출원가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경우 각각 얼마인가?

일자	거래	수량	1개당 매입단가	금액
2017년 초	-	50개	₩100	₩5,000
3월 1일	매입	100개	₩110	₩11,000
5월 1일	매출	60개	-	-
9월 1일	매입	50개	₩120	₩6,000
10월 1일	매출	90개	-	-

	선입선출법	평균법
①	₩15,000	₩15,500
②	₩15,500	₩15,000
③	₩16,000	₩16,500
④	₩16,500	₩16,000

8. 다음 중 종업원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, 그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인식한다.
 ②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닌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.
 ③ 누적 유급휴가는 종업원이 실제로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는 부채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.
 ④ 기업의 제안이 아닌 종업원의 요청에 따른 해고에 따라 생기는 종업원급여는 해고급여에 포함하지 않는다.

9. (주)서울은 20×1년 초에 액면금액 ₩100,000(액면이자율 8%, 만기 3년, 매년도 말 이자지급 조건)의 회사채를 ₩95,000에 취득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. 20×1년 말에 동 회사채에 대해서 현금으로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이자수익으로는 ₩9,500을 인식하였다. 동 회사채의 20×1년 말 공정가치는 ₩97,000이었으며, (주)서울은 이 회사채를 20×2년 초에 ₩97,500에 매각하였다. 이 회사채의 20×1년 기말 평가손익과 20×2년 초 처분손익이 두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?

	20×1년	20×2년
①	영향 없음	₩500 증가
②	영향 없음	₩1,000 증가
③	₩500 증가	₩500 증가
④	₩500 증가	₩1,000 증가

10.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 원가가 없는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.
 ②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수익으로 계상할 수도 있고 관련 비용에서 차감할 수도 있다.
 ③ 관련원가와 대응되는 정부보조금은 주주지분에 인식하는 방법과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.
 ④ 비화폐성 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비화폐성 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명목금액으로 자산과 보조금을 기록할 수 있다.

